

유체이탈의 경험을 통해 찾아낸 인간내면 ③

로버트 먼로 / 박형삼 옮김

그동안 유체이탈에 대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로버트 먼로는 이 글에서는 유체이탈이라는 새로운 존재상태에서 정보들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그의 세계를 보는 눈은 달라져 있다.

기나긴 여정

역사를 살펴보면 홀로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꼬리표를 붙인다. 이교도, 신비주의자, 죄인, 반란자, 혁명가, 신경증 환자, 무정부주의자, 모험가, 반역자, 탐험가, 예언자, 탐구자 등등. 여기서 당신이 또 다른 꼬리표를 달아도 이 목록은 끝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두가 위협을 만나게 된다. 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의 위협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그 위협을 몰랐다고 해서, 무지가 용서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사회에 반항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실천해 옮기는데 치뤄야 할 댓가가 있다면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다치거나 죽는다면 아무도 그들을 위해 위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말해 보자: 당신은 이 새로운 세계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동하는 인간 정신으로서 당신 스스로 경험하여 삶 속에서 테스트해 보기까지 그것은 단순히 신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작은 신념들이 기지(既知)로 바뀌어가는 것과 똑같이 더 커다랗고 다양한 관점

인 신념들도 같은 경로를 거친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까지.

여기서 부터는 개인적으로 다른 존재와 나눈 대화를 그대로 기록해 보여주는 것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인 듯하다. 나에게서 앞이지만 내가 겪은 유사한 경험을 하지 못하였거나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앞은 당신에게는 단지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서 진실인 앞을 당신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나중에 경험을 통하여 그 신념들이 당신의 앞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자.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 30여년의 유체이탈 경험은 내부에 평온한 상태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의 사이클을 마친 것이다. 나에게겐 그렇게 느껴졌다. 세계를 보는 새로운 관점은 나의 내면에 자리를 잘 잡았고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여기에 도달해 인간이 되었는지 알고 있다. 왜 이곳에 머물고 있고,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며 시기는 언제인지도 안다. 그의 무엇이 더 중요하겠는가? 그밖의 것은 사소한 일일 뿐이다.

나에게엔 인스펙(INSPEC, Intelligent Species: 지성을 갖춘 존재)이란 친구가 있었다.

마음/의식을 통해 외계의 다른 존재와 대화하는 것과 직접 그 존재를 마주하여 대화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 재미로건 또는 사실이건 간에 우리는 인스펙(지능을 갖고있는 종)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 이는 그 존재의 에너지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것인데, 그 표현 속에는 우리 인간 정신이 이들보다 조금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인스펙은 내가 전에 만나 보았던 존재들과는 달랐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많은 비물질적 존재들과 만나고 대화하여 교신을 하였는데, 이들은 인간의 물리적 형상을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인스펙은 달랐다.

우리가 주로 만났던 곳은 H대역 잡음(H Band Noise)을 바로 넘어서였다. 이 'H대역 잡음'이라는 곳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 특히, 인간들에게서 뿜어나오는 통제되지 않는 생각들이 절정을 이루는 곳이다. 위에서 내가 모든 생물체라고 하는 말을 진짜로 모든 생물체라고 생각해 보면,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시간들에서 보아도 이 뒤죽박죽된 생각 에너지의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덩어리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H대역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의 진폭은 그 생각에 담겨 있는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인류는 이 H대역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 생각에 이 주파수 대역은 현재 존재하는 생각의 패턴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생각 패턴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이 생각 패턴들은 계속적으로 빈틈없이 H주파수대역을 메우고 있고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전에 만들어졌던 생각 패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둘러 쌓이게 되어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생각 패턴들에서 뿜어져나오는 에너지인 것 같다.

이 주파수 대역을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면, 사실 그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지만 지구와 관련된 인간 정신 활동의 흔적을 넘자마자 보이는 분열 상태로 옮겨가면 된다. 그 분열 상태는 반사층과 거의 유사하여 그 층을 넘어서면 효과가 급속도로 감소한다. 이 속을 통과하는 것은 화가 나서 절규하는 폭도들 사이를 통과하는 것과 같아서 그 소리와 강세가 시끄럽게 마련이다.

이제 앞에서 말한 내친구 인스펙 이야기를 다시 하자. 나의 육체에서 빠져나와 그 H주파수 대역 바로 넘어선 부분으로 옮겨갔을 때 그 친구와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 일부를 발췌해 보았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남자인지 또는 여자인지 성은 모르겠으나

그에게서 나오는 빛이 너무도 밝은데 그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군. 이 존재가 흔히 말하는 외계인(ET)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스펙 : 괜찮아. 곧 그 빛에 적응이 될 거야. 너도 우리가 느끼기엔 똑같이 강한 빛을 발산하고 있는 데 뭐..... 또한 우리는 네가 생각한 외계인이 아니야.

너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읽는다는 말이나?

인 : 그래 사실이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네가 읽어낼 수가 있듯이 말이야.

내가 너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고 했니?

인 : 사실 지금 너는 부분적이거나 이미 내 생각을 읽고 있지. 비록 걸 부분만을 읽고 있지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것(너의 생각은)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도 아니고, 으-음, 그래 맞다. 단지 내 마음 속에 있구나.

인 : 내가 말하는 소위 핵심 자아(core self)라는 것이 기억을 하는 거지.

근데 뭔가 기억이 나는군.... 너에 대한 기억이 나는데... 음 그래 너의 느낌이 기억나는구나.

인 : 네가 무서워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 무서움의 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런데 몇 개의 두려움이 남아 있다...

인 : 그러나 그 두려움들이 너의 지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아. 너는 지금 두려움으로 싸여있지는 ○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무섭지는 않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애. 지금 현재 내가 너랑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서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야. 그런데 너는 내게 굉장히 낯이 익어.... 너는 밝게 빛나는 형체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신, 천사, 적어도 어떤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형체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평범한 두 사람처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야.

인 : 차이점이라면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일 뿐이지.

잠재력이란 대단하군..... 도데체 너는 누구냐? 아니면 뭐하는 존재이냐? 이제 서야 물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나는군.

인 : 지금 그것을 이해하기엔 너의 경험이 아직 부족해. 그러나 이해하게 될 거야.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점에 말이야.

또 만날 수가 있을까?

인 : 만나고 싶으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이 명상을 하란 말이니? 아니면 기도를 하라는 말이니?

인 : 그런 말들과 의식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생각과 감정.... 그래 그것이 신호야. 적절한 신호를 우리가 받으면 너를 도와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좋다 다시 확실히 해 두자. 너는 하나님이 아니며.... 신도 아니란 말이지....

음, 그럼 다른 별에서 온 어떤 사람이니?

인 : 아니. 다른 별에서 오지 않았어.

우리를... 이 지구를 창조했다고 하는 존재중 하나구나?

인 : 아니야. 내가 말하는 창조자가 아니어서 미안하군. 그러나 그 창조 과정과 관련된 것을 줄 수는 있어. 그것을 갖고 싶나?

당연하지. 갖고 싶어.

인 :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가 몰려와 나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어찌할지 모를 정도로 컸다. 이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가 매우 강력하게 진동하는 에너지였다. 이 에너지는 Related Organized Thought Energy(연결되고 잘 조직된 생각 에너지)라는 것으로, 줄여서 ROTE 라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농축된 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많아!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애.

인 : 이해하게 될 거야. 시간을 내어 한가하게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때 말아야.

고마워.

인스펙이 다시 나에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시간이 흘렀다.

인 : 너는 발전과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군.

그래. 나는 확신이 없어. 나의 목표와 목적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사이에는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지.

인 : 무엇이 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

글쎄... 내가 추측컨대....음...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닐까?

인 : 그 목적은 정말 고귀한 목적이야. 그것은 너의 인간적 자아(human self)가 완벽함을 얻고자 늘 추구해 온 바램이지. 그러나 네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경우, 그 바램은 또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지. 그보다 다른 목적들이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바램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나? 아 말을 잘 못했군. 인간적 경험과는 다른 바램이 있다는 말이이?

인 : 이제야 제대로 이해해 나가고 있군.

나는 종종 궁금해 하곤 했지.

인 : 그것에 대해 답을 찾게 될 거야. 이제 너는 물질 육체로 되돌아 가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나의 마음을 읽고 있구나. 뭔지 모르겠으나 되돌아가야 할 것만 같아. 어떻게 다시 만나지?

인 : 너의 의식 속에 이 순간을 떠올리면 돼. 그러면 내가 이곳에 있을께.

고마워.

육체로 되돌아 오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위의 대화중 육체로 되돌아 와야 할 필요를 느낀 것은 충만된 방광이 아니라 내머리 옆 베게 위에 올라왔던 고양이 때문이었다. 유채이탈 전에 방해 안받도록 방을 달아 놔으나 그 압코양이가 요령껏 들어 온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유채이탈은 매우 즐거워서 그 고양이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았다.

이번의 인스펙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은 후, 나는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나의 목적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물리적 존재인 인류가 완벽한 절정에 이루도록 도와 주는 것은 수년 동안의 나의 목표였었다. 이것은 현대 문명이 깊이 생각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목표 너머에 또 하나의 목표를 더한다는 것은 진짜 즐거운 일이었다. 나를 이렇게 흥분되게 한 주요 요인은 나의 관점의 변화였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목표를 매우 신중히 살펴보았다. 물질적 형태로 있는 어떤 사람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잠재적 동기에 오염될 수가 있다. 그중 하나로써, 그런 도와 즐려고 하는 행위는 내가 동물적 잠재 자아(Animal Sub-Self)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아는 지구의 생명 시스템(Earth Life System) 속에 존재하므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 인류에 대한 봉사에 대한 행위까지 이르는데 있어서 필수 과정이다. 동물적 잠재 자아로부터 인간정신으로 향한 유혹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잘못은 단순한 데 있음을 깨달았다. 즉, 내가 무엇을 했던, 무엇을 저술했던, 무엇을 말했던 인류의 운명에는 정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좋았으나 이것은 나의 자아 만족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2세대가 지나면 인류에 대한 나의 봉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부터 잊혀져 버리고 이는 시간의 파도에 의해 씻겨

나가 버리는 모래 위의 발자국들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 인스펙이 옳았다. 그 목적 말고 더 큰 목적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들을 부추기는 큰 목적이 나타났다. 그것은 향수였다. 그래 고향으로 가고 싶은 바램이라는 것이었지. 그곳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났던 곳인 물질적인 장소일 수 있다. 내가 살았던 집, 마을, 도시, 나라일 수 있다. 이 목적은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사실상 거의 모든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단순한 귀소 본능일 뿐일 수도 있다. 또는 여러 종교의 신님들에서 제시되어 온 갖가지 형태의 고향, 근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의 과학적 노력의 대부분은 위에서 말한 동기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영향받는다. 천문학, 우주 탐험, 전파 망원경 등등에 쏟아 부은 수십억 달러가 머지 않은 장래에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줄 거라는 논리는 가능성이 희박한 약속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차라리 고향을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 바램이 이런 과학적 노력의 뒷배경에 있다는 것이 더욱 맞는 것이다.

나에게 기지(既知)였던 것을 기꺼이 다루었다. 근원에 대한 나의 기억은 매우 생생했다. 즉 나의 새로운 목적은 내가 고향에 가서 머무르는 것이 되었다. 수년전에 잠깐이나마 그 곳에 두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내가 인간인 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들은 고향으로 되돌아 갔을 때 커다란 가치를 지니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즐거운 개념이었고 나는 그 개념 속에서 완전히 온 몸으로 즐겼다.

즉시 나는 이 발견을 나의 친구 인스펙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저녁 늦게 나는 유체이탈하여 H주파수대역 바로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만남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 밝게 빛나는 형체가 역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스펙은 나의 생각들을 즉시 알아챘다.

인 : 너는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구나. 그래 그것은 앞에서 네가 말한 것과는 다른 목적이지.

이 삶이 끝나면 고향에 머물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간이 되려고 해. 천 년 아니면 수천 년 후가 될 지도 모르지.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되돌아가 머무를 거야.

인 : 고향을 방문하는 것과 인간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니 좋군.

그래 그건 좋은 것이야. 그러나 확신할 수 없는 게 있어.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인 : 좀 더 많은 것을 기억해 내면 명확해지겠지. 너의 근본적인 초점이 인간에 맞춰져 있는 동안에는 인간이지만 네가 이 근본적인 초점을 바꾸면 더이상 인간이 아닌 것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깨어 있던 잠이들던, 몸 속에 있던 몸 밖에 있던, 육체적으로 살아있던 죽어있던간에 나의 의식의 참 초점이 인간인 이상 나는 인간으로 남게 되는 것이구나.

인 : 그래 맞아.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간에 내가 인간으로서 얻은 기억과 경험 모두를 나는 계속 간직하잖아.

인 : 맞아. 너는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구나. 인간으로서의 경험은 비인간으로서 있을 때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돼. 이것이 네가 가끔 인간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이유야. 거기서 배운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겠지만 너의 주의를 또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거야. 인간으로서 경험을 다한 졸업생은 인간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있지.

고향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선 내가 더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니?

인 : 인간이 되기 이전의 내가 되겠지만 인간으로서 겪은 경험이 더 추가 되는 거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포근하고 친숙한 그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 : 너의 바램은 정말 강하구나.

맞아.

인 :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니?

난 그곳에 대해 가끔씩 가고 싶은 감정이 격앙이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 때가 되면 귀향할 시점이 오게 될 것이야.

인 : 내가 '지금' 존재하듯,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 말은 내가 지금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니? 짧은 방문 말이야. 전에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지. 아주 오래 전이지만 말이야.

인 : 그것이 너의 바램이라면 갈 수도 있지. 방문하고 싶니?

그래. 그곳에 가고 싶어. 정말이야.

인 : 좋아. 방문 후에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준비 됐니?

그래!

인 : 너의 마음을 그곳으로 쪽 뺏어 봐. 네가 고향으로 알고 있는 그곳으로 말
이야. 그리고 이곳을 떠나. 그러면 그곳에 다달을 거야.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하면 도와줄 게.

나는 고향을 최대한 강력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인스펙이 말했듯이 이곳을 놓
아버렸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 내 주변으로 바람이 흘러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앞에도... 옆에서도... 어떤 광경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색깔을 가진 구름 기둥들,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똑같군. 그
러나 이들은 인간 세계의 구름들이 아니다.... 밝은 계통의 갖가지 색으로 이
들은 흘러가고 있구나...이 모두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색깔들이고, 몇몇
색깔은 기억은 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래 구름 기둥 위에서 잠
시 쉬었다가 구경해 보자. 느껴보자....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 보면서 쉬어 보
자...

그리고 음악이 있군... 천개의 악기가 연주하고 있다. 수천개의 목소리가 노래
하고 있어.... 멜로디가 또 다른 멜로디 위에 깔리어 서로 어울려 연주되고 있
다... 완벽한 멜로디의 조화군, 한순간 이 조화의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쪽 한번 뺏어보자 그리고 그 구름들이 나를 감싸게 해보자. 음악이 주변에 가
득하고, 또 내 속에도 있다.... 천년이란 세월이 너무 순간적이야.. 한순간이
야... 참으로 편안하고 너무도 나를 흡수해 버리는구나.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
는 그때와 똑같다. 내가 영원히 머무르고자 이곳으로 되돌아 올 때는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말이야... 그래 영원히...

조그마한 별레가 나의 이 환회에 끼어들어 온다.... 뭔가 잘못되었나? 아니야
나의 육체로 되돌아 가야한다는 신호가 아니야. 그럼 뭘까? 그 구름들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인가? 주의깊게 살펴보자... 그래 커다란 밝은 청색이

있고 2개의 좀더 작은 노랑색이 있군... 낮익는데... 다른 것들은?... 그레 그것들도 낮익고 말이야... 뭐라고? 이것들은 내가 전에 이곳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구름의 형태야... 그리고 다른 것들도 모두 그 전과 똑같군! 이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이클 안에서 같은 패턴을 자꾸 반복하고만 있구나!

이 벌레, 나의 분석학적 벌레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음악, 음악을 살펴봐! 믿을 수가 없어...그러나 그레 이것도 계속 반복하고 있군.... 1시간 전에, 아니 영원한 시간 전에 느꼈던 똑같은 음악이야... 정말 똑같애. 그렇담 다른 곳을 살펴보자... 다른 관점에서 말이야... 고향의 또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 보자....

여기가 좋겠군... 이곳은 그곳과 다르겠지. 그러나 아니야 잠깐만... 이곳도 그 전과 똑같네.... 이곳도 전혀 틀리지가 않아! 안되겠어 더 멀리 저쪽으로 가보자... 더 멀리 말이야... 그러나 여전히 나의 포근한 집안이군.

그레 이곳은 정말 이 앞곳들과 다르겠지. 아니네 아직도 다른 곳과 똑같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반복될 뿐이야. 똑같은 구름들, 똑같은 음악... 좀 더 깊이 들어가보자...

그레 저기에 있구나, 꼬임들의 한 무더기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에너지의 꼬임들말이야. 그레 이것들을 보니 이들은 변화하는 것같군. 나도 한때는 이처럼 하나의 꼬임이었지... 그레 그들이 펼치는 게임속으로 들어가 함께 즐겨보자. 돌고 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돌고 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들어갔다 빠져나오고.. 이 게임은 끝없이 순환하는 사이클과 같구나.. 돌고 돌고...올라갔다 내려갔다... 질렸다. 그만해, 질렸어 질렸단 말이야.

새로운 게임을 해볼까? 이것은 어때?... 응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행복하다고? 변화하고 싶지 않다고? 그레 좋아,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하

려무나....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이것이 이 고향이라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전부란 말이야? 이것들 말고 더 이상 없어. 그렇지만 똑같은 이들 구름속에서 똑같은 음악을 계속들으면서 영원히 이곳에 누워있고 싶지는 않아... 똑같은 게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것들을 꿈꿀 수가 있었을까?

이제 이곳에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다... 하나도 없어. 아 그런데 기억이 난다...그래, 그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었지. 이 상황때문에 내가 이 곳을 떠났어... 그리고 나는 돌아올 수가없어! 돌아오고 싶지 않아!

이제 떠나는게 낫겠군... 어떻게 떠나야 할지를... 그래 어떻게 이곳을 떠나는지 그 방법을 알고있다...

주변에 움직임이 있었다. 구름들이 내 주위를 지나갔다. 그리고 조용해졌지... 그리고 나의 몸으로 다시 기어들어 왔다. 눈을 뜨고 눈물을 헤치며 주위를 둘러 보았다. 달빛이 비치는 내 침실에는 아무것도 바뀐게 없었다. 그러나 내가 변했다.

그뒤 여러시간 동안 나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고무되었고 너무나 우울해서 말이야.(계속)

소리로 유체이탈을 경험한다 헤미싱크

로리 먼로 / 이원규 옮김

2회에 걸쳐 로버트 먼로의 글을 소개하면서 미내사는 먼로 연구소와 접촉을 시도해 최근 그의 딸인 로리 먼로(Laurie A. Monroe)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로리를 통해 1995년 로버트 먼로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녀가 로버트 먼로의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연습을 통해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하는 작업이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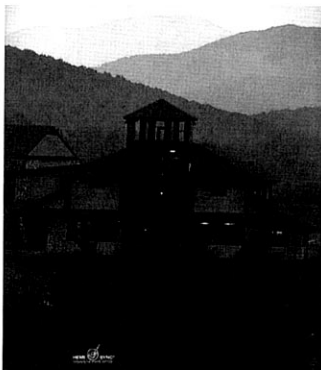
앞으로 '지금여기'를 통해 그들의 작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이번 호에서는 먼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먼로 연구소에서 보내온 헤미싱크 샘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또한 2000년 미내사 신과학포지움에 로리 먼로가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버트 먼로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니를 둔 로버트 먼로는 먼로 연구소를 창립했으며, 이 연구소는 의식 연구의 개척자가 되었다. 1915년에 태어난 먼로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하였다. 1939년 뉴욕으로 이사온 그는 RAM 엔터프라이즈라는 방송망을 구축했다. 라디오 쇼와 라디오를 위한 음악 작곡, 영화 제작 등에서 그는 성공했다.

인간의 의식에 대한 먼로의 관심은 195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그는 수면학습(잠자는 중에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한 작은 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1958년 그의 연구가 물질 육체에서 분리된 의식 상태를 연구하는 것으로 옮겨



먼로 인스티튜트

가게 한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OBE(Out of Body

Experience) 또는 유체 이탈이라 부르는 현상에 대하여 먼로와 그의 그룹은 그 의식 현상을 조절하고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효과적인 소리의 패턴을 만들어 내는 전문가들이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시켰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중요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집단을 매료시켰다. 그

들의 지원으로 먼로는 뇌의 양쪽 반구를 동조시키는 테크닉을 개발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 방법은 헤미싱크(Hemi-Sync)라 불리는데, 두 개의 특허를 따냈으며 수많은 책자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1974년 먼로 연구소는 최초 연구 그룹에서 발전하여 인간의 의식을 자기 조절할 수 있는 학습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다. 이 세미나들은 미국 외 해외의 다양한 곳에서 열렸는데, 1979년 이를 위한 건물이 버지니아의 블루 릿지 산에 세워졌다. 8,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구소 프로그램에 참석했으며, 헤미 싱크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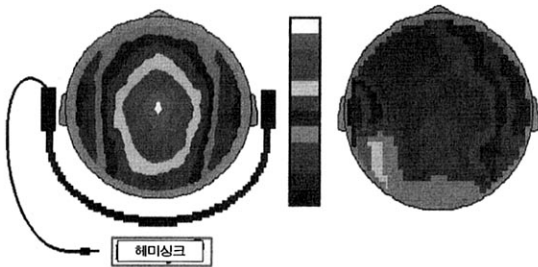
헤미 싱크란?

헤미 싱크는 미국 특허를 받았는데, 의식의 여러 상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오디오로 된 기술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언어로 된 지시서인데, 이 음성 안 내에는 일련의 소리 패턴이 주의깊게 조합되고 섞여 있다. 이 소리 패턴들이 우리의 청각에 올리면 뇌의 좌우 반구가 조화를 이루어 동조하게 된다. 이렇게 전

체 뇌가 기능하게 되는 것(Whole brain functioning)은 주파수 동조 반응으로 알려진 신경학적 메커니즘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이 헤미 싱크의 기본 원리이다. 헤미 싱크는 자신의 의식을 탐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구가 된다.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능력을 강화시키며, 이 증강된 힘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헤미 싱크의 효과는 매우 낮은 볼륨으로 구현되는 소리 주파수의 독특한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헤미 싱크 사운드라 불리는데, 양쪽 귀에 비트(Beat)를 들려줌으로써 가능하다. 정신 집중을 돕는 헤미 싱크 사운드는 잠에 빠뜨리는 소리들과는 다른 특정한 소리 주파수로 직관적이고 창조적인 의식 상태를 증진시킨다.

헤미싱크의 뇌피반응



전뇌(全腦)가 동조된 뇌파 패턴

어떤 생각에 한계지어진 뇌파 패턴

위의 뇌파 지도는 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헤미 싱크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헤미 싱크를 통해 우리는 안전하게 뇌파 패턴을 바꿀 수 있고 강화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